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과 비용의 결정요인[†]

Factors that Influence the Type of Child Care Services and Child Care Expenses

박선욱*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Park, Sun Wook*

Dept. of Consumer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child care expenses and the type of child care services used by preschool children. Data for this study was obtained from a questionnaire completed by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during the spring of 2009.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following methods: χ^2 , ANOVA, multinomial logi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ed the types of child care services used by preschool children. These factors were the child's age, child's sex, mother's age, mother's educational level, mother's employment status, family income, type of residence, residential area, and family type. Monthly child care expenses for one child was an average of 374,000 won and it accounted for about 9 percent of their family income.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 child care expenses were the mother's educational level, the mother's employment status,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family income, residential area, family type and the type of child care services.

Keywords: child care services, child care expenses, preschool children

I. 서 론

자녀보육에 대한 관심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이혼율의 증가, 출산율 저하 등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아동 보육에 대한 이슈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 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61.3%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복지국가를 말한다”, 2011). 특히,

영·유아 어머니의 취업률은 33.7%이고, 그 중 영아 어머니의 취업률은 28.8%로 훨씬 낮다(“탐사기획 당신의 아이는 누가 키우십니까”, 2010). 삼성경제연구소는 30~34세 직장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게 되면 2009년 기준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1만 9830달러에서 2만 2626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사실 양질의 보육 막는 규제가 저출산 부추긴다”, 2010).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적절한 보육서비스의 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형태는 다양한데, 어린이

[†] 이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Corresponding author: Park, Sun Wook

Tel: 02-360-2746

Email: parksunw@gmail.com

집, 유치원, 놀이방 등의 기관과 조부모, 친인척 등의 인적관계망, 그리고 베이비시터, 육아도우미와 같은 타인의 보육서비스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영유아의 61.8%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이 미취학아동을 위한 주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부모, 친인척 등의 개인보육서비스는 영아의 27.7% 유아의 23.0%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영아의 17.1%가 단독이용하고 있었고 10.6%는 기관과 병행 이용하고 있었다. 유아의 경우는 단독이용하는 경우는 0.8%로 낮았고 대부분이 기관과 병행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부모, 친인척 등의 개인보육서비스가 주된 또는 보조적인 보육서비스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0).

이러한 보육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출하는 보육비용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난다. 최근 만5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 317명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유형과 그 비용 실태를 조사한 국내의 한 기관(잡코리아, www.jobkorea.co.kr)에 따르면, 맞벌이 부모들이 일하는 동안 이용하는 보육서비스로는 양가부모님이 43.2%로 가장 많았고, 놀이방과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42.3%), 친인척(8.5%), 베이비시터 등 개인탁아(4.7%) 순이었다. 한편 비용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베이비시터 등 개인탁아의 경우 월 평균 약 136만원을 지출해 가장 높았고, 양가부모님의 경우에는 73만원, 보육시설은 48만원 정도를 지출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0.4%가 보육비용이 많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해,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녀 보육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맞벌이 부부 80% 자녀보육비 부담돼", 2011). 부모들의 자녀보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보육지원정책을 실시해왔고 최근 심각한 저출산율 문제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기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공공성 강화와 보육의 포괄성을 중시하는 유럽식 보다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서비스의 민영화, 보육의 질적 경쟁을 위한 시장기능 활성화,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시장주의 정책의 영미식 전략을 채택해왔다(이옥, 2010; 최영, 2010). 이러한 보육서비스의 민영화와 시장주의 정책 하

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 즉 부모의 특성이나 경제적 능력, 그리고 가족배경 등이 자녀의 보육서비스 유형의 선택이나 비용 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취업상태 등의 부모특성,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등 자녀의 특성, 그리고 가구소득이나 거주지역 등과 같은 가구특성 등에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보육비용의 지출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서비스 이용과 그 비용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육서비스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거나, 국공립시설과 사립·민간시설 등의 설립주체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조부모나 친척 그리고 육아도우미 등의 개인보육서비스는 많은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의 상당 비율이 조부모나 육아도우미의 손에 보육 되고 있어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영유아의 실제적인 보육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보육서비스의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단순 비교하는 연구에 그치고 있어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을 결정짓는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유형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고,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및 가구특성 요인을 분석하며, 보육서비스비용 지출에 대한 실태와 보육서비스비용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고 자녀에게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여성의 인력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육지원정책의 수립과 효과적인 대안 제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유형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유형에 관한 국내외

의 선행연구들은 보육서비스 이용 유형을 파악하고, 자녀, 부모 및 가구특성에 따른 보육서비스 유형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노동패널(KLIPS) 5차년도(2002년) 자료를 토대로 김지경(2004)은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조사하였다. 자녀가 유아인 경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어머니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영유아가 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치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보육시설 및 학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연령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증가한 반면, 어머니 연령이 낮고,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보육시설 및 학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연구를 한 임유경(2008)은 보육시설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보육시설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인구학적 및 생태학적 변인이 보육시설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 연령과 취업유무, 자녀 수, 자녀 연령, 가족형태, 주거형태, 지역사회 거주기간이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인 경우 가정보육시설을, 미취업모인 경우는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릴수록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핵가족일수록 민간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문희 외(2005)는 전국자료를 사용하여 보육·교육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상당수의 아동이 보육·교육기관과 개인서비스(조부모, 친지, 베이비시터 등)를 중복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은 전체 아동의 56.8%가 이용하고 있었고, 조부모 등의 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서비스는 21.0%, 비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서비스는 1.7%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할 때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42분 정도였고, 보육시설의 이용시간이 가장 길었고 유치원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2010)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국공립시설 이용자와 민간시설 이용자로 구분하여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주당 평균 5일, 하루 평균 6.68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시설 이용 비용은 월평균 약 23.7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시설 이용 비용은 시설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이 약 18.77만원으로

민간보육시설의 26.77만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onenstein *et al.*(2002)은 미국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자료인 NSAF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1999년도)를 사용하여, 맞벌이 가구의 만12세 이하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유형을 조사하였다. 만4세 이하 미취학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의 28%가 보육기관(center-based care)을 이용하였고, 27%는 친지보육(relative care), 14%는 개인보육서비스(family child care providers; 친지가 아닌 타인의 가정에서 보육), 4%는 베이비시터(nannies or baby-sitters care)보육을 이용하였다. 맞벌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는 27%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부모의 직장 스케줄을 서로 조정해서 자녀를 돌보거나 여러 가지의 보육서비스를 비정규적으로 이용하여 자녀를 보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3세 미만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유형에 관해 조사한 Ehrle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육기관 이용률이 증가함을 보였다. 만1세 미만 아동의 15%가 보육기관을 이용한 반면 만1세~2세미만 아동의 23%, 만2세~만3세미만 아동의 27%가 보육기관을 이용하였다. 반면 친지보육(relative care)은 영아인 경우에 더 많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영아의 보육을 위해서는 보육기관보다는 친지보육이나 부모가 직접 보육하는 것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았는데 부모, 자녀 및 가구의 특성이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보육서비스 유형의 실태조사로 이루어졌고, 보육 기관 별로(국공립 vs. 사립·민간 vs. 가정보육시설 등)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조부모 및 육아도우미 등의 개인보육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보육서비스 유형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 보육서비스 비용 지출

미취학자녀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가구의 보육비 지출실태와 비용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김지경, 2005; 이선애, 2009; 이완정, 2009; 박선욱, 2008; 보건복지부, 2010)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보건복지부의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0)에 의하면, 영유아 1인이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할 때 드는 월평균 비용은 27만원(비용지출이 있는 아동 기준)으로 가구소득 대비 9.2%로 나타났다. 비동거하는 조부모나 친인척의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비용은 월평균 28만 5천원으로 조사되었고, 비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불 비용은 영아 55만5천원, 유아 33만 7천원으로 자녀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노동패널(KLIPS)의 8차년도(2005)자료를 이용하여 박선욱(2008)은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보육비 지출실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용은 25만 4천원 이었으며, 이 비용은 가구소득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보육비지출도 증가하였으며, 미취학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2세대 가구인 경우에 보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애(2009)는 한국노동패널 9차년도(2006년)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수 및 보육·교육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영유아의 연령과 가구소득이 보육·교육서비스의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3~5세 집단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2세 이하 집단에 비해서 많았고, 가구월소득이 높을수록 이용하는 서비스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세미만 자녀수가 적을수록, 월소득이 높을수록 영유아 일인당 보육·교육 비용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외동이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한 이완정(2009)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형태와 보육비용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가 영아기 자녀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보육형태는 ‘친인척 등 개인보육자’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부’, ‘부부가 돌보면서 친인척이 지원’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유아기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보육형태는 ‘기관’, ‘부부’의 순으로 나타나 유아는 보육기관에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영아기 자녀의 총 보육비용은 월평균 45만 3천원, 유아기 자녀의 총보육비용은 월평균 38만 7천원으로 영아의 보육비용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 2004년 자료를 사용한 김현숙(2008)의 연구에서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시간당 자녀보육비용을 조사하였는데,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시간당 보육비 지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어릴수록 시간당 비용지출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당 보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 어머니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보육서비스 수준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보육비 지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자녀 연령, 어머니 연령,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여부, 자녀수, 가구소득, 거주지역, 가족구조,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형태 등 다양한 요인이 보육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한 종류로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조부모, 친척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포함하여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자녀 및 가구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지출의 실태를 조사하고, 보육비 지출의 결정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인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그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1.1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이용시간 실태는 어떠한가?
- 1.2 자녀 및 가구특성에 따라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 1.3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보육서비스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1 자녀 일인당 보육서비스비용 지출 실태는 어떠한가?
- 2.2 자녀 및 가구특성에 따라 보육서비스비용 지출 수준 및 소득대비 보육비비용의 차이가 있는가?
- 2.3 보육서비스비용 지출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변수

이상의 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변수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현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취학자녀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는 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우리나라의 사회·인구학적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도(마산시)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수집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은 소비자 관련 학과 학생들이 면접을 통하여 표기하거나 기관에 배부 후 회수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조사는 2008년 12월 1일~12월 10일까지 75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예비조사의 응답결과를 기초로 설문지의 일부 항목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2009년 4월 10일~5월 20일까지 95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695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취학자녀를 기준으로 자료를 재취합하였는데, 한 가구당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취학자녀 1명

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가구 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취학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만나이가 어린 자녀 1명만 추출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총 555케이스가 본 연구의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4. 조사도구

미취학자녀의 보육서비스 유형과 그 비용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8차년도)과 Giannarelli *et al.*(2003), 김지경(2005)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구성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자녀별로 이용하는 보육서비스가 있는지 묻고, 이용하는 보육서비스가 있다면 이용하는 모든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각 보육서비스 유형별로 한 주당 이용일 수, 하루 평균 이용시간, 그리고 월평균 지출비용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보육서비스의 유형으로는 국·공립 및 민간·사립 어린이집, 놀이방,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영어유치원, 직장보육시설, 동거/비동거하는 조부모, 친척, 타인(육아도우미 등), 기타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보육서비스 이용 변수	보육서비스 유형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유형 (유치원=1, 조부모/육아도우미=2, 어린이집/놀이방=3)	범주형변수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한 주당 이용시간 주당 이용일수에 하루평균 이용시간을 곱하여 산출.	연속변수
보육비용 변수	보육서비스 비용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월평균 지출비용	연속변수
	가구소득대비 보육비비율	보육서비스 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퍼센트). 월평균 보육서비스 비용에 월평균 가구소득을 나누어 산출.	연속변수
자녀 및 가구 특성 변수	자녀 연령	미취학자녀의 만 나이	연속변수
	자녀 성별	남아=1, 여아=0	가변수
	어머니 연령	어머니의 만 나이	연속변수
	어머니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상=1, 고졸 이하=0	가변수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1, 미취업=0	가변수
	미취학 자녀 수	가구 내 미취학자녀의 수	연속변수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의 log ₁₀ 값	연속변수
	주택소유형태	전세/월세/기타=1, 자가=0	가변수
	거주지역	서울·경기=1, 광역시·도=0	가변수
가족구조	확대가족=1, 핵가족=0	가변수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유형 및 이용시간 그리고 보육비 지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보육서비스 유형, 이용시간 및 지출비용의 가구특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χ^2 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추후 검증으로서 Tukey를 실시하였다.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분석을 하였으며, 보육비용 지출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미취학자녀의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은 종속변수의 여러 범주 중에서 한 범주를 기준 범주로 정하고, 다른 범주를 기준범주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종속변수의 결과가 기준범주에 비하여 다른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Maddala, 1983).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보육서비스 유형'이며, 어린이집/놀이방을 이용하는 경우($j=3$)를 기준범주(reference category)로 하여 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j=1$)와 조부모/육아도우미를 선택하는 경우($j=2$)로 나누어진다. 기준범주는 나머지 범주들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데, 다항로짓 분석에서는 사례수가 가장 많은 집단을 기준범주로 선택하면 추정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Menard, 2001).

종속변수가 특정 유형 j 에 속할 확률을 $P(Y=j)$ 라고 하고, 기준범주 유형 J 에 속할 확률을 $P(Y=J)$ 라고 할 때, 다항로짓모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log[P(Y=j)/P(Y=J)] = \alpha_{jk} + \sum \beta_{jk} X_k$$

여기서 α_{jk} 는 상수항이며 β_{jk} 는 회귀계수이고 X_k 는 설명변수이다. 이 식에서 β 값은 두 범주의 비교값이 되기 때문에 범주의 수에 따라 값의 수가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범주가 세 개이고, 기준범주가 어린이집/놀이방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β 값이 나타나고, β_1

은 유치원, β_2 는 조부모/육아도우미의 값이 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해서 다항로짓분석을 두 번 실시하였는데, 먼저 어린이집/놀이방 범주를 기준범주로 하여 유치원 또는 조부모/육아도우미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다음으로는 유치원과 조부모/육아도우미 유형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기준범주로 하여 다항로짓분석을 한번 더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SPSS 16.0 software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 자녀 및 가구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취학 자녀와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대상 자녀의 평균 연령은 3.64세이고, 만0~2세 22%, 만3~4세 46.1%, 만5~6세가 31.9%를 차지하였다. 남아는 55.6%였고, 여아는 44.4%였다. 분석대상 자녀의 어머니 연령은 평균 34.9세였고,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37.1세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졸인 경우가 각각 39.6%, 48.5%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가 취업한 비율은 50.0%였고, 취업모 중 83.8%가 전일제로 근무하였다.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수는 약 4명이었고, 만18세미만 자녀수는 평균 1.66명이었다. 미취학 자녀가 1명인 가구는 75.3%로 가장 많았고, 2명인 가구는 23.6%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393만 1천원으로 나타났고, 500만원 이상인 가구가 31.5%, 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28.6%를 차지하였다. 주택소유 형태는 자가 5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세(35.3%)가 많았다. 전체 중 49.9%가 서울에 거주하였고, 광역시 22.3%, 도 15.9%, 경기 11.9%로 나타났다. 가족 구조는 핵가족인 경우가 79.6%였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인 경우가 20.4%였다.

〈표 2〉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인 특성^a

N=555

변 수	빈도(%)	mean (sd)	변 수	빈도(%)	mean (sd)
자녀 연령 ^b		3.64(1.46)	취업모 근로시간		하루 평균 8.47시간(2.02)
0~2세(0,1,2)	122(22.0%)		전일제	197(83.8%)	
3~4세(3,4)	256(46.1%)		시간제	38(16.2%)	
5~6세(5,6)	177(31.9%)				
자녀 성별			가구원수		3.99(.98)
남아	300(55.6%)		만 18세미만 자녀 수		1.66(.66)
여아	240(44.4%)				
어머니 연령		34.87(4.11)	미취학 자녀수		1.26(.46)
만30세 미만	50(9.0%)		1명	418(75.3%)	
만30세~만34세	215(38.9%)		2명	131(23.6%)	
만35세~만39세	219(39.6%)		3명	6(1.1%)	
만 40세 이상	69(12.5%)				
아버지 연령		37.12(4.52)	월평균 가구소득 ^c		393.06만원(180.92)
만30세 미만	14(2.6%)		300만원 미만	138(28.6%)	
만30세~만34세	138(25.5%)		300~400만원 미만	121(25.1%)	
만35세~만39세	236(43.5%)		400~500만원 미만	72(14.9%)	
만 40세 이상	154(28.4%)		500만원 이상	152(31.5%)	
어머니 교육수준			주택소유형태		
고졸이하	142(26.3%)		자가	320(58.5%)	
전문대졸	135(25.0%)		전세	193(35.3%)	
대졸	214(39.6%)		월세	15(2.7%)	
대학원졸 이상	49(9.1%)		기타	19(3.5%)	
아버지 교육수준			거주지역		
고졸이하	109(20.6%)		서울	277(49.9%)	
전문대졸	86(16.2%)		경기	66(11.9%)	
대졸	257(48.5%)		광역시	124(22.3%)	
대학원졸 이상	78(14.7%)		도	88(15.9%)	
어머니 취업여부			가족구조		
미취업	271(50.0%)		핵가족	442(79.6%)	
취업	271(50.0%)		확대가족	113(20.4%)	

^a 어머니/아버지 연령, 어머니/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모 근로시간, 자녀성별, 주택소유형태는 missing value 로 인해 빈도의 전체 합이 555가 안됨.

^b 자녀연령은 만나이 임.

^c 월평균가구소득: 부부의 총소득, 집세, 사업소득, 이자, 보너스 등의 모든 소득을 합한 월평균 소득. 극단값의 영향을 배제 하기 위해 월평균가구소득의 상위 4%(월평균소득 1,0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제외한 483가구가 분석에 포함됨.

2. 보육서비스 유형 및 이용시간 실태

〈표 3〉은 미취학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이용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아동이 한 가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80.8%), 두 가지 이

상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19.2%로 나타났다. 두 종류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각 보육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1차적(primary) 보육서비스와 2차적 보육서비스로 나누었는데, 이용시간이 더 길거나 비용지출이 더 많은 것을 1차적 보

〈표 3〉 미취학자녀의 보육서비스 유형 및 이용시간

변 수		1차적 보육서비스	2차적 보육서비스
		552(100%)	106(100%)
보육서비스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70(12.7%)	1(0.9%)
	민간·사립 어린이집	245(44.4%)	.
	사설놀이방	15(2.7%)	.
	국공립유치원	16(2.9%)	.
	사립유치원	132(23.9%)	.
	영어유치원	19(3.4%)	1(0.9%)
	직장보육시설	5(0.9%)	.
	동거/비동거 조부모	40(7.2%)	69(65.1%)
	동거/비동거 친척	1(0.2%)	7(6.6%)
	동거/비동거 타인(육아도우미 등)	5(0.9%)	12(11.3%)
	기타	4(0.7%)	16(15.1%)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a	한 주당 이용일 수	5.00일(.49)	4.78일(1.64)
	하루 평균 이용시간	6.96시간(2.68)	5.22시간(4.78)
	5시간 미만	52(10.2%)	44(57.9%)
	5~8시간 미만	269(52.6%)	14(18.4%)
	8시간 이상	191(37.3%)	18(23.7%)

^a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변수는 missing value로 인해 빈도의 전체 합이 552(1차적 보육서비스), 106(2차적 보육서비스)이 안 됨.

육서비스로 분류하였다.

미취학자녀들이 이용하는 1차적(primary) 보육서비스의 유형에는 민간·사립 어린이집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립유치원이 23.9%로 많았다. 동거 또는 비동거하고 있는 조부모가 보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40명(7.2%)이었다. 두 가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들의 2차적 보육서비스 유형은 조부모인 경우가 65.1%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대다수가 기관이 아닌 조부모, 친척, 타인(육아도우미)을 2차적 보육서비스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0)의 조사내용과 유사함을 보이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영아의 27.6%, 유아의 23.6%가 이러한 개인양육서비스를 단독 또는 기관과 병행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1차적 보육서비스의 한 주당 이용일 수는 평균 5.0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6.96시간이었으며, 5시간~8시간 미만 이용이 52.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자녀 및 가구 특성에 따라서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이용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보육서비스의 유형을 세 범주(어린이집/놀이방, 유치원, 조부모/육아도우미)로 재분류하였는데, 국공립/민간/사립 어린이집과 사설놀이방은 ‘어린이집/놀이방’ 범주로, 국공립/사립 유치원과 영어유치원은 ‘유치원’ 범주로, 동거 또는 비동거하는 조부모, 친척, 육아도우미는 ‘조부모/육아도우미’ 범주에 포함하였다. 그 외 직장보육시설(6명)과 기타(7명)로 응답한 경우는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기에는 그 수가 적어 제외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자녀 연령에 따라서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유형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0~2세는 조부모/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만3~4세는 어린이집/놀이방, 만5~6세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가 영아인 경우 조부모, 친척, 육아도우미와 같은 개인보육서비스를 선호하며, 만5~6세와 같이 취학연령에 가까워지면 보육의 개념이 강한 어린이집 보다는 교육의 개념이 좀 더 중시되는 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서문희 외, 2001).

〈표 4〉 자녀 및 가구특성별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시간

변 수	전체	보육서비스 유형 ^a			χ^2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b	F
	n(%)	어린이집/놀이방	유치원	조부모/육아도우미			
전 체	543(100.0)	330(100.0)	167(100.0)	46(100.0)		35.4(16.6)	
자녀 연령							
평균	3.64세(1.46)	3.42세(1.32)	4.57세(1.05)	1.85세(1.38)	151.65***	45.2(26.6)	25.03***
0~2세	118(21.7)	80(24.2)	3(1.8)	35(76.1)			
3~4세	254(46.8)	174(52.7)	72(43.1)	8(17.4)			
5~6세	171(31.5)	76(23.0)	92(55.1)	3(6.5)			
자녀 성별					1.16	34.9(16.7)	0.57
남아	292(55.3)	183(56.7)	84(51.9)	25(58.1)		36.1(16.6)	
여아	236(44.7)	140(43.3)	78(48.1)	18(41.9)			
어머니 연령							
평균	34.9세(4.1)	34.6세(4.3)	36.0세(3.4)	32.6세(3.8)	38.57***	39.1(13.1)	3.71*
만30세 미만	50(9.2)	37(11.2)	6(3.6)	7(15.6)			
만30세~만34세	208(38.4)	135(41.0)	46(27.5)	27(60.0)			
만35세~만39세	215(39.7)	115(35.0)	91(54.5)	9(20.0)			
만40세 이상	68(12.6)	42(12.8)	24(14.4)	2(4.4)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이하	140(26.5)	110(34.5)	26(15.9)	4(8.9)	40.29***	35.4(10.0)	0.93
전문대졸	135(25.6)	86(27.0)	38(23.2)	11(24.4)			
대졸	205(38.8)	106(33.2)	75(45.7)	24(53.3)			
대학원졸 이상	48(9.1)	17(5.3)	25(15.2)	6(13.3)			
어머니 취업여부							
미취업	265(50.0)	164(51.3)	87(53.0)	14(30.4)	7.85*	29.9(10.0)	59.82***
취업	265(50.0)	156(48.8)	77(47.0)	32(69.6)			
미취학 자녀수							
평균	1.25명(0.46)	1.25명(0.45)	1.19명(0.44)	1.48명(0.51)	16.70***	34.4(14.0)	4.66*
1명	413(76.1)	249(75.5)	139(83.2)	25(54.3)			
2명 이상	130(23.9)	81(24.5)	28(16.8)	21(45.7)			
월평균가구소득 ^c							
평균(만원)	392.4(181.6)	361.9(178.7)	446.1(172.8)	442.7(183.2)	35.04***	35.2(11.4)	0.20
300만원 미만	137(29.0)	114(38.1)	16(12.1)	7(17.1)			
300~400만원 미만	119(25.2)	71(23.7)	36(27.3)	12(29.3)			
400~500만원 미만	69(14.6)	36(12.0)	26(19.7)	7(17.1)			
500만원 이상	147(31.1)	78(26.1)	54(40.9)	15(36.6)			
주택소유형태							
자가	312(58.3)	180(55.7)	103(62.0)	29(63.0)	2.26	33.9(13.8)	4.85*
전세/월세/기타	223(41.7)	143(44.3)	63(38.0)	17(37.0)			
거주지역							
서울/경기	334(61.5)	161(48.8)	133(79.6)	40(87.0)	58.33***	36.0(18.1)	1.24
광역시/도	209(38.5)	169(51.2)	34(20.4)	6(13.0)			
가족구조							
핵가족	432(79.6)	271(82.1)	142(85.0)	19(41.3)	45.80***	34.7(12.3)	3.65
확대가족	111(20.4)	59(17.9)	25(15.0)	27(58.7)			
보육서비스 유형							
어린이집/놀이방						35.9(11.0)	70.03***
유치원						29.7(8.2)	
조부모/육아도우미						65.1(46.5)	

* $p < .05$, ** $p < .01$, *** $p < .001$

^a 어머니연령과 어머니교육수준 변수의 카이제곱분석에서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보이는 셀이 각각 1셀 있음. 그 외 변수의 모든 cell에서 기대빈도 5이하는 없음.

^b 주당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n=512. 단위: 시간(hour), s.d.

어머니가 고졸 이하인 경우 자녀가 어린이집/놀이방(34.5%)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조부모/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률(69.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수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조부모/육아도우미 이용률(45.7%)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의 가구소득은 평균 446.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놀이방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361.9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유치원 이용률이 어린이집 이용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선행연구(서문희 외, 2002; 서문희 외, 200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서울·경기지역에서 유치원(79.6%)과 조부모/육아도우미(88.0%)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광역시/도 지역에서는 어린이집/놀이방 이용률(51.2%)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 내에 자녀 보육을 도와 줄 조력자가 없는 핵가족인 경우 확대가족에 비해 어린이집/놀이방(82.1%)이나 유치원(85.0%)등의 기관 이용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자녀 및 가구특성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4). 종속변수인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은 한 주당 이용시간을 나타내며, 조사대상 자녀들의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평균은 주당 35.4시간(16.6)이었다. 자녀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육서비스의 주당 이용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예상대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미취업인 경우보다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40.8hr vs. 29.9hr). 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주당 이용시간이 29.7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조부모/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65.1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조부모/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관처럼 등·하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부모가 출근 한 후부터 퇴근까지의 시간 동안 보육을 담당하고 저녁이나 밤 시간 또는 주말에도 보육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의 결정요인

미취학자녀의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상수만을 이용한 우도값 $(-2LL(0))=807.614$ 과 독립변수가 포함된 우도값 $(-2LL(k))=533.014$ 의 차이를 나타내는 Chi-square값이 274.600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별로 각 대안을 선택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집/놀이방 보다는 유치원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이 1세 높을수록 어린이집/놀이방 보다 유치원을 선택할 확률이 2.4배 높다. 반면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어린이집/놀이방이나 유치원 보다는 조부모/육아도우미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어릴수록 신체적 건강이나 안전 등을 우선시 하는 부모의 요구에(김미화 외, 2004) 이러한 개인보육서비스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 연령이 어린 경우 기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친인척이 보육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서문희 외, 2001)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인다. 자녀의 성별도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는데, 자녀가 남아인 경우 어린이집/놀이방이나 유치원보다 조부모/육아도우미를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이 높을수록 조부모/육아도우미 보다는 어린이집/놀이방을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였고, 어머니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 어린이집/놀이방에 비해 유치원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취업모인 경우가 미취업모보다 유치원 선택확률 대비 조부모/육아도우미를 선택할 확률이 3.6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시간적 요구 수준이 높은 취업모의 경우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이용 시간이 길고 서비스 이용시간 조정이 비교적 용이한 개인보육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린이집/놀이방에 비해서 유치원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조부모/육아도우미 보다는 어린이집/놀이방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어린이집/놀이방에 비해서 유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의 조력자가 있는 확대가족인 경우에 어린이집/놀이방이나 유치원에 비해서 조부모/육아도우미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핵가족의 경우보다 보육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보육서비스비용 지출 수준 및 소득대비 보육비비율

<표 6>에서는 미취학자녀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지출의 수준과 가구소득대비 보육비비율을 자녀 및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았다. 미취학자녀 일인당 지출하는 보육서비스 비용은 월평균 37만 4천원이었고, 이 비용은 가구소득의 9.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육비용 지출은 자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만5세~6세의 보육비 지출이 만3~4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별로는 30대 어머니가 20대에 비해서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당 많은 보육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보육서비스 비용에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모인 경우 자녀일인당 43만 2천원, 미취업모인 경우 31만 8천원을 지출해 약 11만 4천원의 차이를 보였고, 소득대비 보육비비율도 취업모인 경우 9.96%로 미취업모의 8.3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가구는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모의 소득대비 보육비비율

이 높다는 것은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보육서비스비용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보육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녀 일인당 보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광역시·도 보다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46만 9천원 vs. 22만 2천원). 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51만 7천원)이나 조부모/육아도우미(53만 5천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어린이집/놀이방(28만 6천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린이집/놀이방에 비해 소득대비 보육비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11.12% vs. 8.12%),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부담이 어린이집/놀이방을 이용하는 것보다 큼을 나타낸다.

〈표 5〉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의 결정요인

변 수	유치원 vs. 어린이집/놀이방			조부모/육아도우미 vs. 어린이집/놀이방			조부모/육아도우미 vs. 유치원			
	B	Standard error	Exp(B)	B	Standard error	Exp(B)	B	Standard error	Exp(B)	
상수	-8.662***	1.912		.696	3.818		9.359*	4.183		
자녀 연령	연속변수	.886***	.124	2.426	-1.294***	.261	.274	-2.180***	.285	.113
자녀 성별(남아)	여아(기준)	-.380	.247	.684	1.168*	.534	3.215	1.548**	.574	4.702
어머니 연령	연속변수	-.013	.032	.988	-.166*	.081	.847	-.154	.085	.858
어머니 교육수준 (대졸이상)	전문대졸이하(기준)	.734**	.271	2.084	.971	.528	2.639	.236	.580	1.267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미취업(기준)	-.409	.254	.664	.880	.550	2.410	1.289*	.593	3.628
미취학 자녀수	연속변수	.372	.297	1.450	.652	.492	1.919	.280	.546	1.323
월평균 가구소득	연속변수 log(가구소득)	1.510*	.605	4.526	.703	1.374	2.020	-.807	1.464	.446
주택소유형태 (전세/월세/기타)	자가(기준)	-.070	.258	.932	-1.246*	.565	.288	-1.177	.610	.308
거주지역 (서울·경기)	광역시·도(기준)	.807**	.281	2.242	1.187	.646	3.279	.380	.694	1.463
가족구조 (확대가족)	핵가족(기준)	-.214	.345	.807	2.656***	.546	14.237	2.870***	.622	17.640
Chi-square	274.600***									
-2 Log likelihood	-2LL(0)=807.614, -2LL(k)=533.014									
n	464									

* p< .05, ** p<.01, *** p<.001

〈표 6〉 자녀 및 가구특성에 따른 보육서비스비용 지출수준 및 소득대비 보육비비율

변 수	n	보육서비스 비용(만원) ^a	F	가구소득 대비 보육비비율(%) ^b	F
전 체	537	37.40(32.86)		9.15(7.24)	
자녀 연령					
만0세~만2세(a)	116	36.31(39.08)	3.09*	9.47(8.88)	1.01
만3세~만4세(b)	250	34.47(27.67)	b<c	8.65(6.69)	
만5세~만6세(c)	171	42.43(34.80)		9.64(6.72)	
자녀 성별					
남아	293	38.41(33.39)	0.53	9.37(7.53)	0.63
여아	232	36.30(32.79)		8.84(6.89)	
어머니 연령					
만30세 미만(a)	48	23.87(25.78)	3.08* a<b,c	8.67(9.42)	0.542
만30세~만34세(b)	211	39.55(35.66)		9.63(7.62)	
만35세~만39세(c)	210	38.19(30.91)		8.78(6.34)	
만40세 이상(d)	66	37.55(32.99)		8.96(6.71)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이하(a)	138	21.61(18.58)	28.67*** a<b,c,d b<c,d c<d	7.82(6.40)	2.91* a<c
전문대졸(b)	132	32.04(22.12)		8.92(6.02)	
대졸(c)	206	45.73(38.70)		10.19(8.46)	
대학원졸 이상(d)	49	61.65(39.33)		9.70(6.58)	
어머니 취업여부					
미취업	266	31.77(30.24)	16.07***	8.35(6.91)	6.09*
취업	259	43.15(34.69)		9.96(7.52)	
미취학 자녀수					
1명	407	38.89(32.41)	3.46	9.82(7.32)	13.80***
2명 이상	130	32.75(33.95)		7.02(6.60)	
월평균가구소득					
300만원 미만(a)	135	17.80(17.56)	44.74*** a<b,c,d b,c<d	9.01(8.80)	0.516
300~400만원 미만(b)	116	31.90(22.06)		9.90(6.70)	
400~500만원 미만(c)	71	39.04(24.22)		9.47(6.04)	
500만원 이상(d)	165	56.34(40.91)		8.86(6.59)	
주택소유형태					
자가	309	40.75(33.67)	7.60**	9.05(6.79)	0.215
전세/월세/기타	220	32.79(31.31)		9.35(7.83)	
거주지역					
서울/경기	331	46.86(36.30)	82.32***	10.09(7.67)	13.50***
광역시/도	206	22.20(18.06)		7.66(6.24)	
가족구조					
핵가족	429	37.79(31.66)	0.29	9.40(7.19)	2.30
확대가족	108	35.87(37.39)		8.18(7.39)	
보육서비스 유형					
어린이집/놀이방(a)	323	28.55(23.76)	36.28*** a<b,c	8.12(6.48)	9.25*** a<b
유치원(b)	161	51.73(31.91)		11.12(6.49)	
조부모/육아도우미(c)	41	53.54(61.58)		10.62(12.29)	

* $p<.05$, ** $p<.01$, *** $p<.001$ ^a 보육서비스 비용은 자녀당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월평균 지출비용임.^b 가구소득대비 보육비비율 $n=493$.

5. 보육서비스 비용 지출의 결정요인

<표 7>은 자녀 일인당 보육서비스 비용 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분석결과, 어머니 교육수준은 보육서비스비용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 전문대졸 이하에 비해 보육비를 약 9만 3천원 정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현숙, 2008)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환경적 요인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비용지출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어머니 취업도 보육비용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6만원 정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수는 보육서비스비용 지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가구의 총보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과는(박선옥, 2008; 백선희, 조성우, 2005) 반대로 자녀 한 명에게 지출하는 보육비용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김현숙, 2008; 이선애, 2009) 결과와 동일함을 보인다. 즉, 가구 내 미취학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일인당 보육비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가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은 보육서비스

<표 7> 보육서비스 비용 지출의 결정요인^a

변 수		보육서비스 비용(만원)	
		b	β
상수		-64,220	
자녀 연령	연속변수	.032	.001
자녀 성별	남아=1 여아=0	1,183	.018
어머니 연령	연속변수	-.096	-.012
어머니 교육수준	대졸이상=1 전문대졸이하=0	9,275**	.138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1 미취업=0	5,954*	.089
미취학 자녀수	연속변수	-8,752**	-.122
월평균 가구소득 ^b	연속변수 log(월평균가구소득)	38,532***	.271
주택소유형태	전세/월세/기타=1 자가=0	-1,952	-.029
거주지역	서울·경기=1 광역시·도=0	10,378**	.150
가족구조	확대가족=1 핵가족=0	-6,607	-.079
보육서비스 유형	유치원=1	11,658**	.158
	조부모/육아도우미=1	18,444**	.149
R square		.319	
F 값		17,527***	
n		462	

* $p < .05$, ** $p < .01$, *** $p < .001$

^a b값과 표준화계수 β 값이 제시되었음.

^b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는 월평균 가구소득(만원)의 log10 값임.

비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는데, 회귀모형의 다른 변수들과 비교했을 때 월평균 가구소득의 영향력($\beta = .271$)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 보육비 지출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 선행연구들(김지경, 2005; 박선욱, 2008; 백선희, 조성우, 2005; 이선애, 2009; Giannarelli & Barsimantov, 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광역시도 보다 10만 4천원 정도 많이 보육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종류의 보육기관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비용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지경, 2005)와 일치함을 보인다. 기본 보육비는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교재비, 급식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기관마다 다르게 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비용의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서울·경기 지역의 기관에서 이러한 기타 항목에서의 비용을 더 많이 요구한다고 볼 수 있겠다. 보육서비스 유형도 보육비용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는데,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어린이집/놀이방에 비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약 11만 7천원을 더 많이 지출하며, 조부모/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 18만 4천원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유형과 그 비용지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미취학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유형은 민간·사립 어린이집(44.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립유치원(23.9%)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는 형태의 조부모보육은 7.2%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 두 가지의 보육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 65.1%가 조부모의 보육서비스를 이차적인 보육서비스로 이용하고 있었다.

미취학자녀의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가 선택하는 보육서비스 유형이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는 조부모/육아도우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유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부모들은 자녀가 어린 영아인 경우 기관보다는 조부모, 친척, 육아도우미 등의 개인보육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김미화 외, 2004; 노성향, 2010; 이영미, 2005)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0세 영아는 보육시설보다는 조부모 등 개인에 의한 양육을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0).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보육지원정책에서 영아를 둔 가구에겐 유아를 둔 가구와는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데,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다른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는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정부보육지원은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에게만 금전적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로 기관보다는 개인보육서비스를 더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는, 시중의 보육기관들이 영아들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들의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영아에게 적합한 시설과 환경을 마련한다든지, 아동 수 대비 교사수 비율을 높이는 등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반면,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주요한 공급자가 되고 있는 조부모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지원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영아를 둔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척보육을 원하지만 사실 조부모들은 영유아 보육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므로 손자녀 보육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 보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분석 결과 가구소득은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린이집/놀이방에 비해서 유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각 보육서비스 유형에 대한 이용 비용의 차이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놀이방

에 비해서 약 11만 7천원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치원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이 시중에 존재하고(예를 들어, 영어유치원 등),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여 행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아서 어린이집/놀이방 보다는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유치원 보다 어린이집/놀이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가구에 보육서비스 비용은 보육서비스 유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환경이나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육지원의 욕구가 큰 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뿐 아니라 보육비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에 비해 자녀당 월평균 6만원 정도 보육서비스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취업모의 경우 자녀보육을 위한 보육서비스 유형으로 유치원보다 조부모/육아도우미를 선택할 가능성이 3.6배 높게 나타났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은 취업모의 경우 등·하원 시간이 정해져 있는 유치원보다 일반적으로 보육시간을 자유롭게 조정가능한 조부모/육아도우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모가 보육 기관보다 개인보육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기관들이 취업모의 보육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시간연장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연장 서비스가 실시되는 기관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시간연장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간연장 서비스를 실시하는 보육기관의 확대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취업모가구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불충분한 실정이다. 현재 2011년 정부에서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부합산 소득의 75%만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하향조정해 주는 방안으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혜택을 보는 가구는 소수이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의 ‘OECD 국가의 아동지원 수준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보고서’에 의하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정부의 교육서비스 및 양육 지원이 많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정

부의 취학 전 교육서비스 및 아동 양육지원 비중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0.2%로 OECD 30개국 중 27위로 조사되었다(“한, 취학전 교육 양육 지원 OECD 바닥권”, 2011). 가구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취학아동이 있는 취업모가구에 대한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넷째, 연구 결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출 비용은 자녀 일인당 월평균 37만 4천원이었고, 이 비용은 가구소득의 9.15%를 차지하였다. 보육서비스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 의하면, 가구의 미취학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일인당 보육비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 욕구에 비해 자원이 제한적인 다자녀 가정의 아동에게 적절한 보육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하는 것으로서, 다자녀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2011년에는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자녀 1인당 공제액을 늘려서 세제혜택을 주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키고 있지만, 현재 보육관련 지원정책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둘째아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100% 지원을 해주는 보편적 지원정책이 둘째아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분석 자료 샘플링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거주지역을 서울, 광역시, 경기도, 도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광역시로는 인천광역시 한 곳이 포함되었고, 도 지역으로는 마산시 한 곳만 포함되어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정도 많고 가구특성의 차이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유형이나 지출수준에 있어서 도시지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후속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 자료를 포함시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유형 중 하나로 조부모와 육아도우미를 한 범주로 묶어서 ‘조부모/육아도우미’ 범주를 만들어, ‘어린이집/놀이방’, ‘유치원’ 범주와 비교하였다. 조부모와 육아도우미는 기관이 아닌 개인서비스라는 측면과 가정집에서 보육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어 한 범주로 묶어서 사용하였으나, 지불하는 비용이나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조부모 보육과 육아도우미 보육을 각각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독립변수의 한계를 들 수 있는데,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의 분석에서 자녀 및 가구특성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만 포함되었다. 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예를 들어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이나 교육내용과 방법, 시설설비의 안전성, 원장과 교사의 자질, 학급당 아동 수, 주위평판, 통원거리 등의 요인 등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김연희, 박응임, 2006). 부모들의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선택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분석이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보육서비스 유형, 보육서비스 비용, 미취학자녀

참 고 문 헌

- 김미화, 탁옥경, 한혜원, 김현정. (2004).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시설장, 학부모의 인식 및 중요도 비교분석-관악구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서울: 관악구보육정보센터.
- 김연희, 박응임. (2006). 부모의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선택요인 및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4(8), 89-99.
- 김지경. (2004).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8), 65-76.
- 김지경. (2005).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3(6), 47-60.
- 김현숙. (2008). 보육료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차등 보육료 확대방안. **재정학연구**, 1(2), 61-103.
- 노성향(2010). 취업여성의 영아 보육 현황과 육아지원방안-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정규직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 111-128.
- 맞벌이 부부 80% 자녀보육비 부담돼 (2011, 3. 22) **뉴데일리**. 자료검색일 2011, 4. 25, 자료출처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42953>
- 박선옥. (2008).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보육비 지출실태와 영향요인. **소비문화연구**, 11(2), 197-213.
- 백선희, 조성우. (2005).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과 결정요인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1, 429-455.
- 보건복지부. (2010). **전국보육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복지국가를 말한다. ‘임신후 엑스레이과 발령...그만두라는 거죠’ (2011, 6. 23) **경향신문**, p.8
- 사설 ‘양질의 보육’ 막는 규제가 저출산 부추긴다. (2010, 12. 29) **동아일보**, p.31
- 서문희, 임상현, 임유경. (2001). 자녀양육실태와 미취학 아동 보육 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관한 분석.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1-265.
- 서문희, 임유경, 박애리. (2002).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 조애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정책보고서 2005-07.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선애. (2009). 영유아보육교육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육학회지**, 9(3), 69-86.
- 이영미. (2005). 취업모의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95-104.
- 이옥. (2010). 한국보육정책의 성과와 정책변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동학회지**, 31(1), 197-217.
- 이완정. (2009). 취업모의 일-자녀양육 양립 부담감과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요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117-126.
- 임유경. (2008). 영유아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 (2010). 보육서비스 이용 부모의 보육접근성 만족도 및 서비스 욕구 비교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4, 73-98.
- 탐사기획 당신의 아이는 누가 키우십니까 (2010, 11. 5) **중앙일보**, p.1
- 한, 취학전 교육 양육 지원 OECD 바닥권 (2011, 3. 15)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11, 4. 25,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959929>
- Ehrle, J., Adams, G., & Tout, K. (2001). *Who's caring for our youngest children? child care patterns of infants and toddlers.*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 Occasional Paper No. 42).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Giannarelli, L., & Barsimantov, J. (2000). *Child care expenses of America's families*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Occasional Paper No. 40).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Giannarelli, L., Adelman, S., & Schmidt, S. (2003). *Getting help with child care expenses*(Assessing the New Federalism Occasional Paper No. 62).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Maddala, G. S. (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nard, S. (2001). *Appli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 Sonenstein, F., Gates, G., Schmidt, S., & Bolshun, N. (2002). *Primary child care arrangements of employed parents: findings from the 1999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Occasional Paper No. 59).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접수일 : 2011. 07. 04.
 | 수정완료일 : 2011. 08. 12.
 | 게재확정일 : 2011. 08. 18.